

경제학원론

- 문 1. 본원통화량이 불변인 경우,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르시오. (단,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요구불예금보다 적다)

- ㄱ.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대비 초과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.
 ㄴ.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.
 ㄷ. 시중은행이 준수해야 할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 ③ ㄴ, ㄷ ④ ㄱ, ㄴ, ㄷ

- 문 2.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한다. 통근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K의 최적 선택은? (단, K의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은 1만 원이다)

거주 아파트	월별 통근시간 (단위: 시간)	월별 임대료 (단위: 만 원)
A	10	150
B	15	135
C	20	125
D	30	120

- ① A 아파트
 ② B 아파트
 ③ C 아파트
 ④ D 아파트

- 문 3. 국내총생산(Gross Domestic Product)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자국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온 재화의 양
 ② 자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낸 재화의 양
 ③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한 재화의 양
 ④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양

- 문 4.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A기업의 고정비용인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보다 30% 상승했다. 단기균형에서 A기업이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면 전년대비 올해의 생산량은? 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)

- ① 30% 감축 ② 30% 보다 적게 감축
 ③ 30% 보다 많이 감축 ④ 전년대와 동일

- 문 5. 다음은 가계, 기업, 정부로 구성된 케인즈 모형이다. 이때 투자지출은 120으로, 정부지출은 220으로, 조세수입은 250으로 각각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?

소비함수: $C = 0.75(Y - T) + 200$
 투자지출: $I = 100$
 정부지출: $G = 200$
 조세수입: $T = 200$

- ① 10 감소 ② 10 증가
 ③ 20 감소 ④ 20 증가

- 문 6. 갑과 을이 150만 원을 각각 x 와 y 로 나누어 가질 때, 갑의 효용함수는 $u(x) = \sqrt{x}$, 을의 효용함수는 $u(y) = 2\sqrt{y}$ 이다. 이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과 공리주의적 배분은? (단, 공리주의적 배분은 갑과 을의 효용의 단순 합을 극대화하는 배분이며 단위는 만 원이다)

파레토 효율적인 배분

공리주의적 배분

- ① $(x + y = 150)$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. $(x = 75, y = 75)$
 ② $(x = 30, y = 120)$ 의 배분이 유일하다. $(x = 75, y = 75)$
 ③ $(x = 75, y = 75)$ 의 배분이 유일하다. $(x = 30, y = 120)$
 ④ $(x + y = 150)$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. $(x = 30, y = 120)$

- 문 7. 리카디안 등가(Ricardian Equivalence)는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이에 대한 반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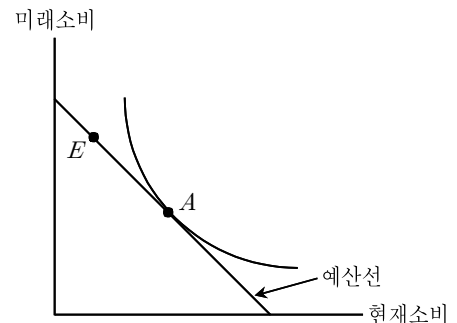
- ㄱ. 소비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단견을 갖고 있다.
 ㄴ. 소비자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제약이 있다.
 ㄷ. 소비자들은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한다.

- ① ㄱ, ㄴ
 ② ㄱ, ㄷ
 ③ ㄴ, ㄷ
 ④ ㄱ, ㄴ, ㄷ

- 문 8. 단기적으로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있다. 모든 기업은 동일한 총비용함수 $TC(q) = q^2$ 을 가진다고 할 때, 시장 공급함수(Q)는? (단, p 는 가격이고 q 는 개별기업의 공급량이며,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)

- ① $Q = p/2$
 ② $Q = p/200$
 ③ $Q = 50p$
 ④ $Q = 100p$

- 문 9. 다음은 두 기간에 걸친 어느 소비자의 균형조건을 보여준다. 이 소비자의 소득 부존점은 E 이고 효용극대화 균형점은 A 이며, 이 경제의 실질이자율은 r 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원점에 볼록한 곡선은 무차별곡선이다)



- ① 실질이자율(r)이 하락하면, 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한다.
 ②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는 차입자가 될 것이다.
 ③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인 경우,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평준화(Consumption smoothing) 현상이 나타난다.
 ④ 유동성 제약이 있다면, 이 소비자의 경우 한계대체율은 $1+r$ 보다 클 것이다.

